

# 교회론 제3강

[소망양육 증인됨 과정]

# 제 2강 Review

초대교회론

그리스도론  
삼위일체론  
중심

중세교회론

우남상탐  
카톨릭과  
교황권의  
절대화

종교개혁 이후

가시적, 비가시  
적 용어 등장

그리스도인 공동  
체가 곧 교회

# 카노사의 굴욕 (1077)







# 아비뇽 유수 (feat. 바빌론 유수) (1309~1377)

배경 : 메츠 제국회의 (1356)

# 제 2강 Review

초대교회론

그리스도론  
삼위일체론  
중심

중세교회론

우남상탐  
카톨릭과  
교황권의  
절대화

종교개혁 이후

가시적, 비가시  
적 용어 등장

그리스도인 공동  
체가 곧 교회

# 제 3 강

## 수업 목차

I . 구약시대의 공동체

II . 신약성경 속의 교회



03

## 교회론 제 3강

성경에서  
발견하는 교회론

# 구약성경에서 교회 찾아볼 수 있을까?

## 1. 노아의 방주공동체

로마카톨릭 – 교회는 노아의 방주 모델로 설명가능  
(최초의 교회)



# 구약성경에서 교회 찾아볼 수 있을까?

## 2. 모세의 광야공동체 (고전10:1-4)

고전 10장 서두에서 바울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조상(이스라엘) 이야기를 소개.

“출애굽과 광야의 순례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신 사건은 교회공동체의 상황과 유사.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것은 유비적으로 교회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

교회는 역사 속에 실재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향한  
광야 공동체였다.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광야교회. 이것은  
현실의 교회이며 실재하는 교회. 완성된 교회가 아닌  
도상의 교회

# 구약성경에서 교회 찾아볼 수 있을까?

## 3.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과 계약의 행위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공동체(coetus electorum) (출 19: 5-6: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 언약 공동체

바울은 구약 이스라엘에 적용되었던 언약 공식을 초대 교회에 적용.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후 6:16).



# 언약공동체

로마서에서도 구약 호세아 인용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9:25-26).

교회론 차이

**구약 이스라엘**

**VS**

**신약 교회**

#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 차이점

(1) 세례공동체: 이스라엘은 할례 공동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식은 곧 할례.

그러나 기독교는 세례공동체.

회개와 용서의 표식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 차이점

(2) 예배공동체: 최초의 기독교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중심으로 삼는 공동체였다.

이들은 **성전 중심에서 가정과 지역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변화



#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 차이점

(3) 성만찬 공동체: 이스라엘=유월절 공동체

기독교 =성만찬 공동체. 이 만찬은 예수의 죽으심을 회상하고,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만찬이었다.

■ ■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주님을 회상하고,  
영광 중에 오실 주를 기다리는  
만찬으로서 성만찬은  
마지막 때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식.  
유대교의 유월절 만찬이 서서히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자취를 감춘 반면  
공동체의 종말론적 만찬은 계속 존재

한스 쿵

■ ■

#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 차이점

(4) 이방인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를 결정적으로  
유대 공동체와 분리시킨 사건은 바로 이방인 공동체의 형성.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지역으로 선포. 성전의 파괴와  
유다적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 이방 기독교공동체가 급속히 전파.

# 구약이 말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 끊임없이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거듭하는 공동체.

돌이킬 때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



# 구약이 말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 이스라엘은 오류와 실수 투성이의 연속체.

회개하고 개혁하는 도상적 존재.

구약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혁이 없던 시기는 없었다.

때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때로는 왕들이나 선지자들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 신약에 나타나는 교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살후 2:14)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갈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전1:2)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롬 1:7), “아시아의 교회들”(고전 16: 19),

“마게도냐 교회들”(고후 8: 1), “유대에 있는 교회들”

( 갈 1: 22),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고전 16:19),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

(몬 1:2),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계 1:4),

예루살렘(행 5:11, 8:1, 3, 11:22, 12:1, 14:27 등)과 안디옥의 교회(행 11:

26, 13:1, 15:3, 41)

# 신약의 에클레시아는 가시적, 지역적 교회들

모두 가시적 교회, 즉 “신자들의 실질적인 모임 혹은 정기적으로 구성된 집회”를 지칭한다.

에클레시아 = 구체적 지역 명칭이 부여됨.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종교개혁이 말하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는  
분리된 두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한 교회의 두 측면을 지칭할 뿐. 신학적으로는 구분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바울은 교회를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의 혼합 공동체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 바울에게 있어서 “선택된 자”는 실존했던 지역교회



신약성경은 이러한 구분을 알지 못한다.

신약시대의 교회안에 이미 도덕적 타락과 분열적 파벌들이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교회라고 불렀다.

그는 죄인과 의인의 혼합체,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의 혼합체,  
본질과 형태, 현실과 이상 등의 용어로 교회를 구분 또는 분리 않음.

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이 등장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가시적 교회의 타락과 배교 및 이단 때문.  
그러나 경험적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세상위에 떠 있는  
“유토피아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 바르트도 현실교회의 분열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도피행각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에클레시아는 집회 및 모임을 의미한다.**

위에서 본 지역교회들은 단순한 이름들이 아니라 각 지역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정기적인 모임에 부여된 칭호. 바울이 본 교회는 모임에 초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함께 모여 교회가 된다고 생각. 바울에게 신자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신자들이 예배를 위하여 서로를 붙들어 주기 위하여 함께 모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회중 역할을 할 수 있었다.”

(J. Dunn)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롤로프는 예배를 위한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

“개인들이 교회로서 모일 때 그것이 교회이다. 예배를 위한 모임은 교회의 중심이자 기준. 여기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공동식사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미숙한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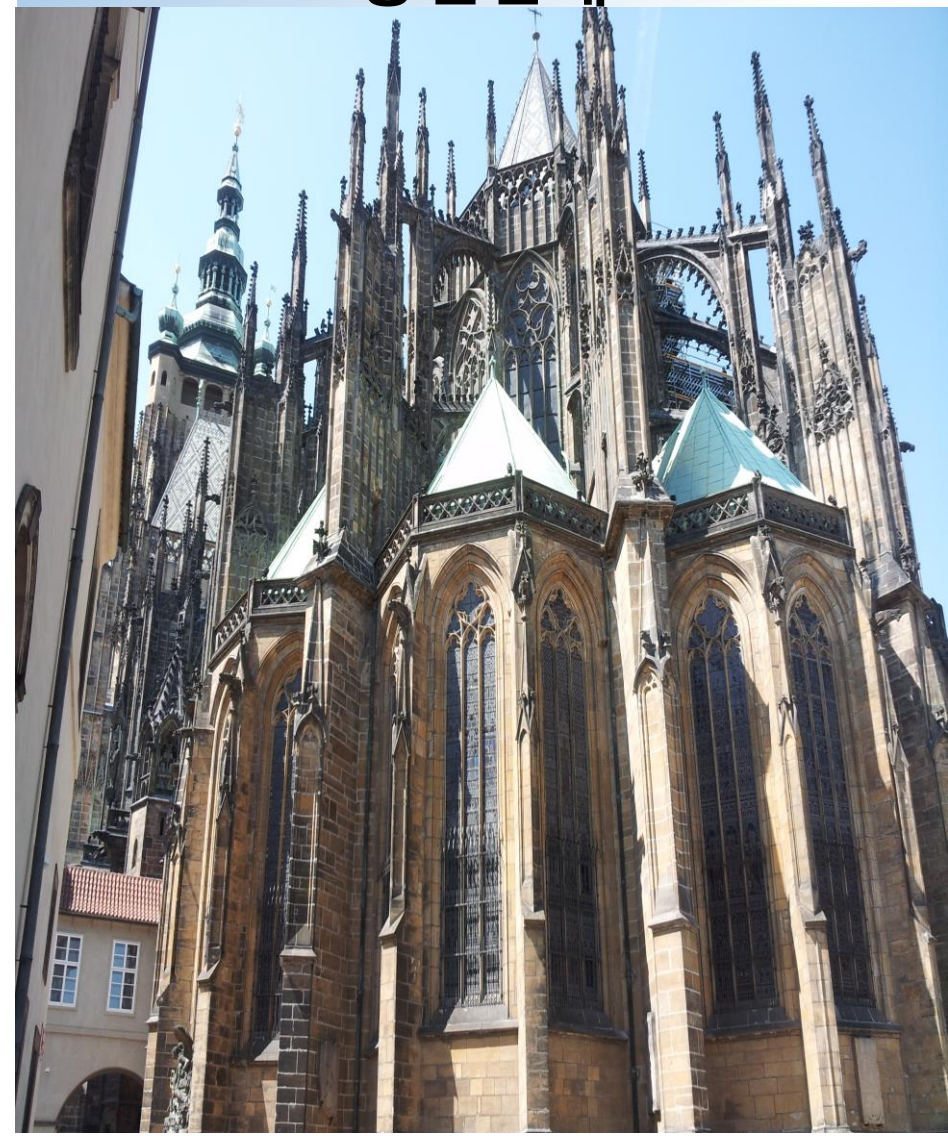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그러므로 예배를 위한 모임을 폐기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교회됨은 우선 모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흠어지는 교회에 앞서 모이는 교회가 중시되어야 한다. 흠어지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어야 가능하다. 오늘날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교인들을 향하여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초기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어떤 제도나 건물로 이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지칭하였다.

계속 강조하지만 교회는 곧 '사람들' 이라는 점.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나 질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교회를 어떤 장소에 있는 예배당을 염두에 두거나, 교회를 섬긴다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조하지만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다음의 성경구절들은 잘 말해준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고전 16:19)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고전 12:28).

“그 때에 헤롯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하여...” (행 12:1)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행 8:3).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전 1:2-3).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이 구절들에 의하면 분명히 교회는 사람.  
건물을 의미한다면 “집에 있는 교회”라든  
지, “문안한다”든지, “교회 중 몇을 세웠는  
데” 교사요 사도요 등의 말들은 말이 안됨.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임을 인지할  
때 교회는 더 많은 함의를 갖게 된다.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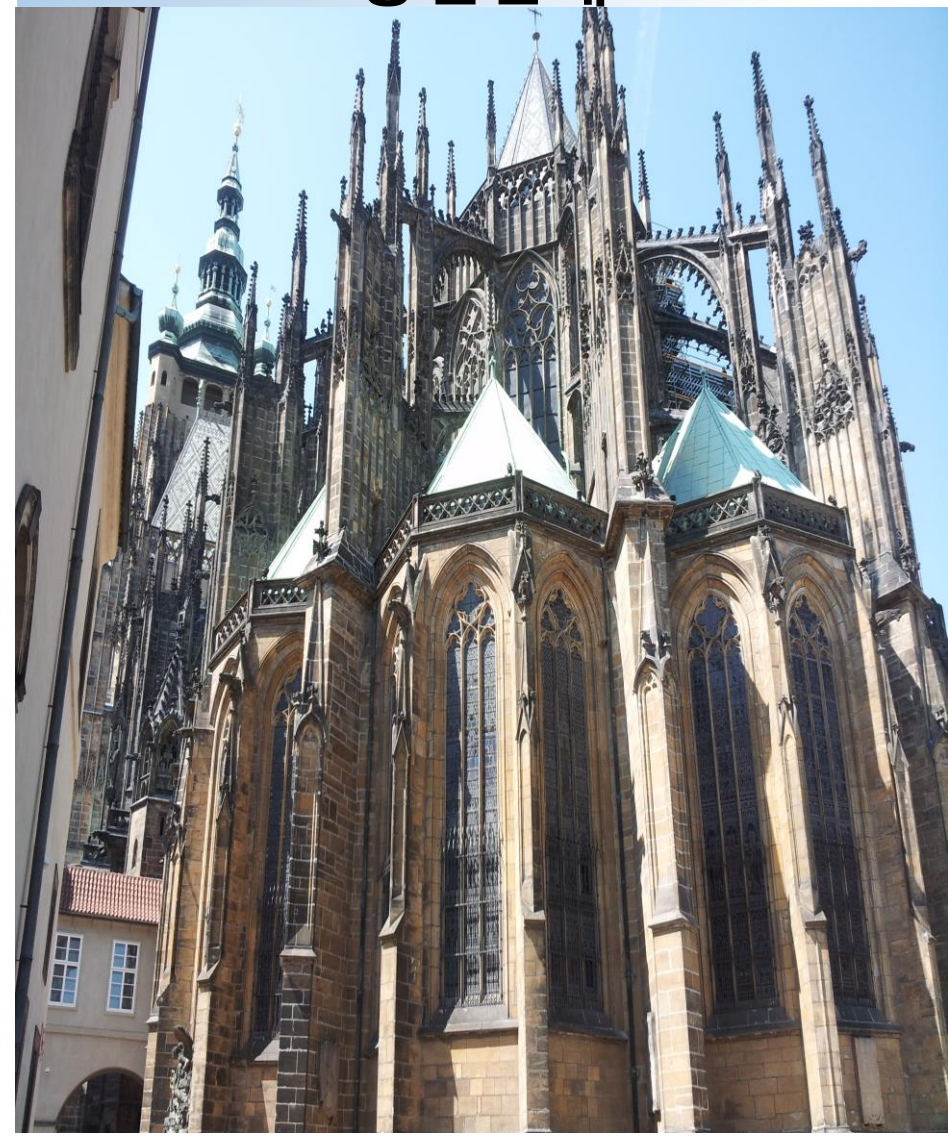
그러므로 1.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로 모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반대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조직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사람을 비판하는 책임을 인지해야 한다.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2. 교회는 곧 사람이므로 사회성,  
관계성, 인성이 부여되고, 교회에  
하나님과 타인과 피조물에 대한  
책임성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 3. 교회는 사람임을 말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은 교회의 오류성에 관한 문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늘 아래의 현실교회는 아무리 순수할 지라도 오류를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25, 5).

다만 “불가시적 교회”를 교회의 다른 측면, 지금 보이는 교회가 개혁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삼는다면 이런 구분은 유용할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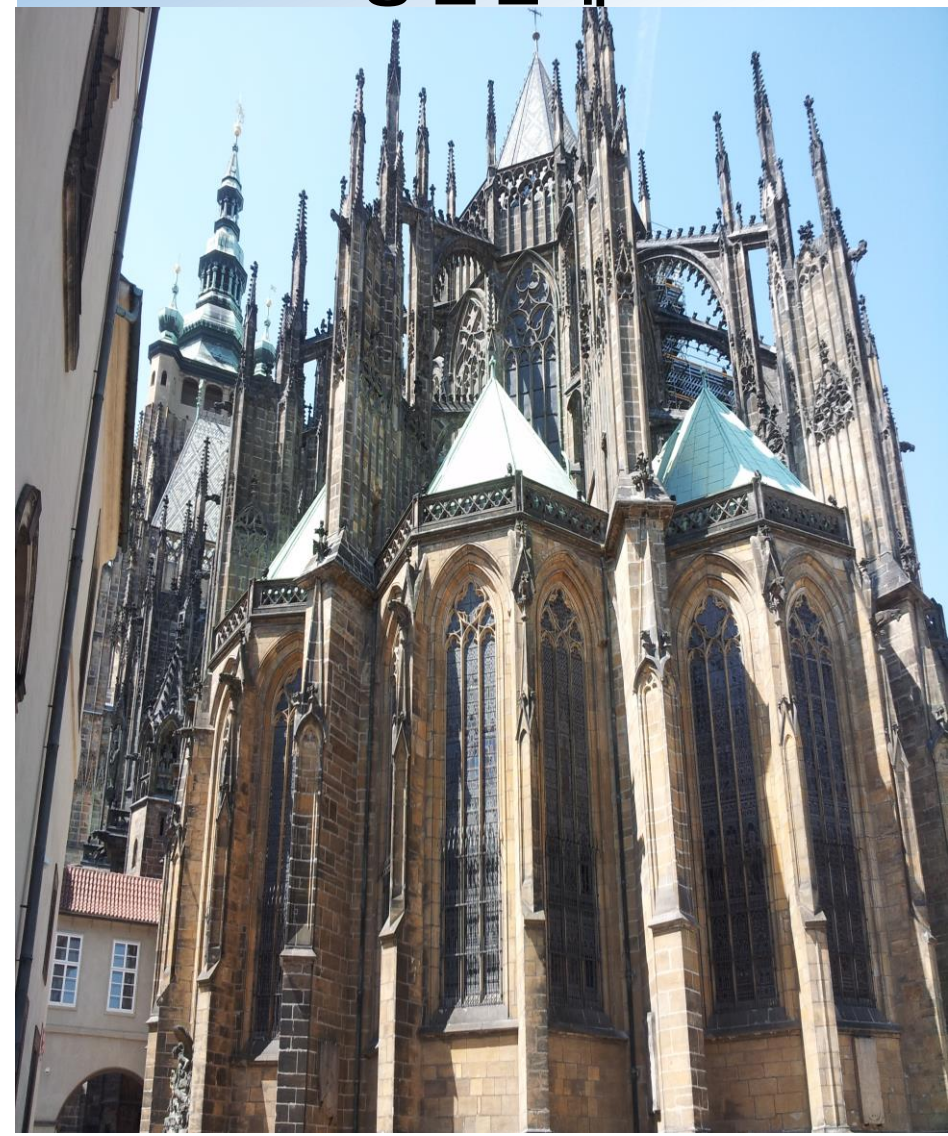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 개별교회들을 교회라고 부른 신약의 언급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개별교회보다 보편적 교회, 전체교회를 일컫는 것이라 추측한다. 그러나 전체교회와 하나의 교회를 강조한 나머지 개별교회의 중요성이나 개별교회의 교회됨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신약성경은 지역교회와 보편교회의 엄격한 구분을 인정 않음  
모두 다 가시적 교회들이며 구체적인 역사적, 지역적 교회들이다.  
독일의 신약학자 롤로프(J. Roloff)

“회중 (congregation, 특정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합)  
과 교회(Church, 초회중적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를 구분하  
는 것은 신약에서는 매우 낯선 것이다”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바울은 일반적으로 전체교회(the total church)를 말한 적이 없으며 지리적 영역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다. 지역 규모를 뛰어넘는 교회론적 진술이 바울 서신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바울에 의하면 개별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를 대표한다.”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물론 성경은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에베소는 교회의 보편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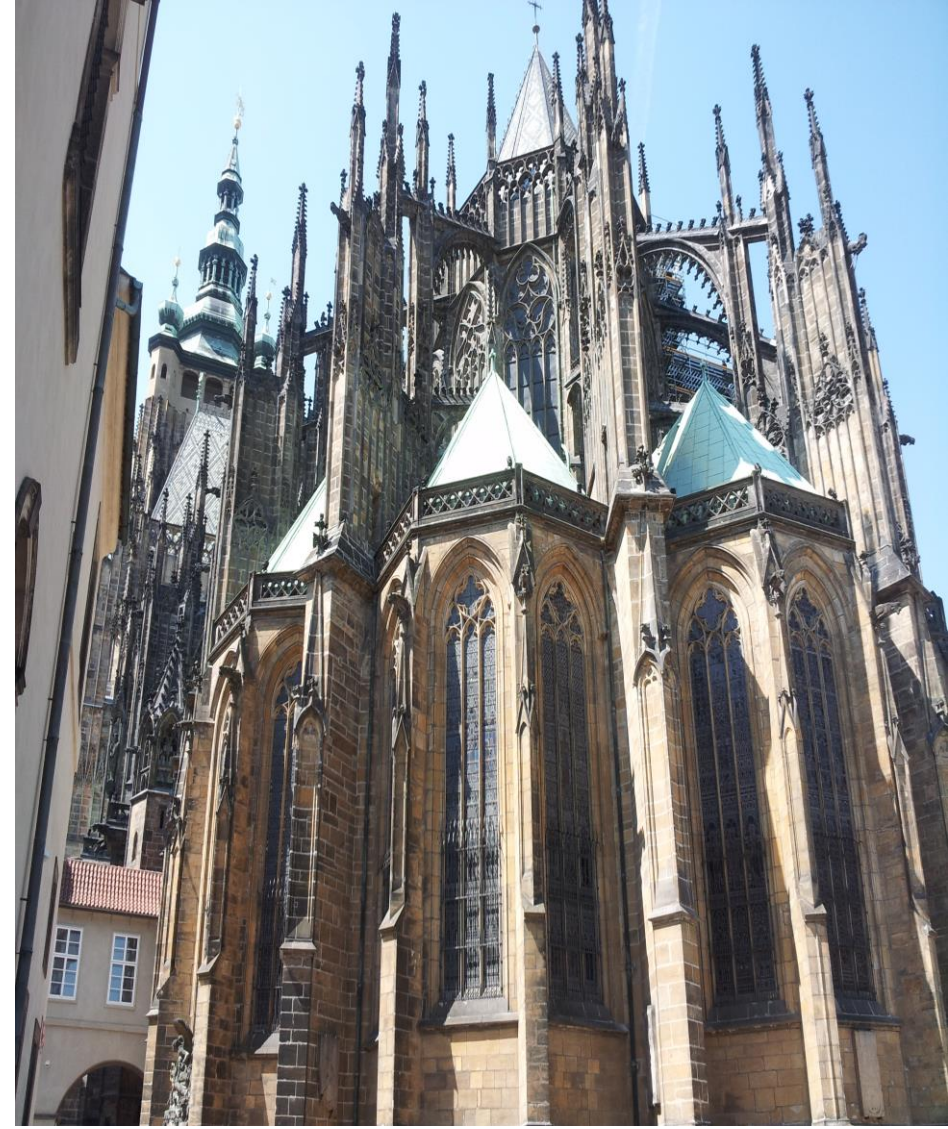
그러나 이것이 지역 교회를 배제하거나 초월하는, 숨어있는 그 무엇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성은 개체성을 무시하지 않으며 희생시키지도 않는다. 역으로 개체성은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개체성으로만 존재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하나의 교회, 전체로서의 교회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전체는 개체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존중해야 하며, 개체는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중심과 변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지역적 차별성이 있을 수 없다.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며 그리스도의 몸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역교회의 강조는 사실상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개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중요한 신학적 이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사랑은 있을 수 없다. 개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우리는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일지라도 결코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교회를 도덕적으로 완전한 집단, 무결한 순수공동체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때, 그 안에는 이미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 오류가 없거나 흠이 없는 교회, 회개와 개혁이 필요 없는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스 쿵에 따르면, 무오한 교회는 현실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관념에 존재하는 교회. 관념의 교회는 부족함이나 오류가 없으며, 타락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는 회개와 변혁도 필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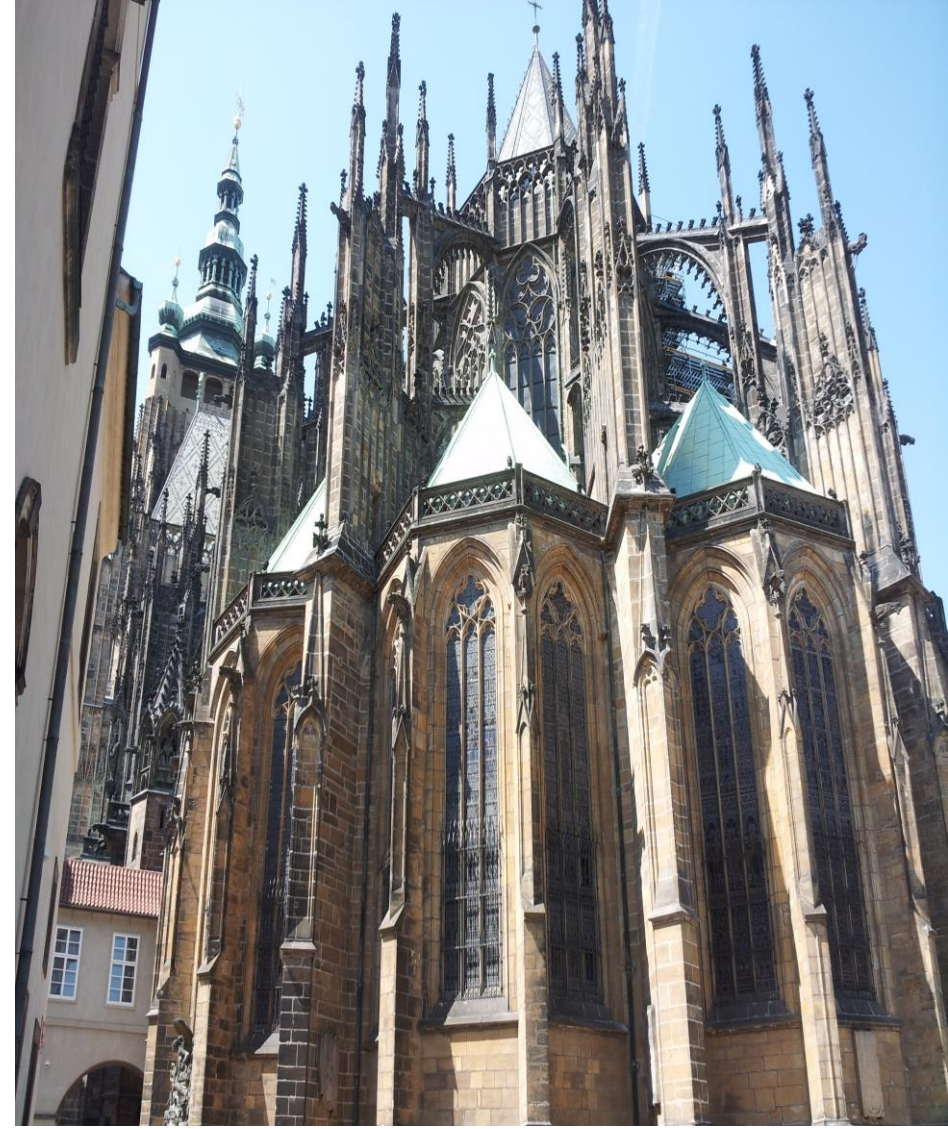
# 1. 하나님의 교회

## 하나님의 교회

신약은 하나님과 교회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매우 강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등의 표현이 바로 그것. 바울은 고전 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로 정의.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 1. 하나님의 교회

-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 \*11장 22절은 성찬 식사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린도 교인들의 분열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임을,
- \*11장 16절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관례에 관한 논쟁을,
- \*15장 9절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 과거 고백 (cf.갈 1:13)
-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고난을 소개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바울이 본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모임과 관련.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된다 생각. 바울에게 신자들은 고립된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신자들이 예배를 위하여 서로를 붙들어 주기 위하여  
함께 모일 때야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회중  
역할을 할 수 있었다.”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교회는 인간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의미.

성경은 이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칭하고 있음 (고전10:32, 고후1:1, 딤후3: 15, 고전: 11: 22)

그러므로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벧전 2:9-11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과 계약의 행위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된 모임, 우리가 교회로  
선택되고 부름 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주도적 사건인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는 교회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제는,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를 의미.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부르실 때의 일차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 위함.

**교회는 이웃을 향한 섬김의 공동체**이다. 본회퍼 “교회는 남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난한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여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창조세계를 돌보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날 엄청난 자연이 파괴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 자연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섬겨야 한다.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 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관련 성구: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12: 4-8)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고전12:23-27**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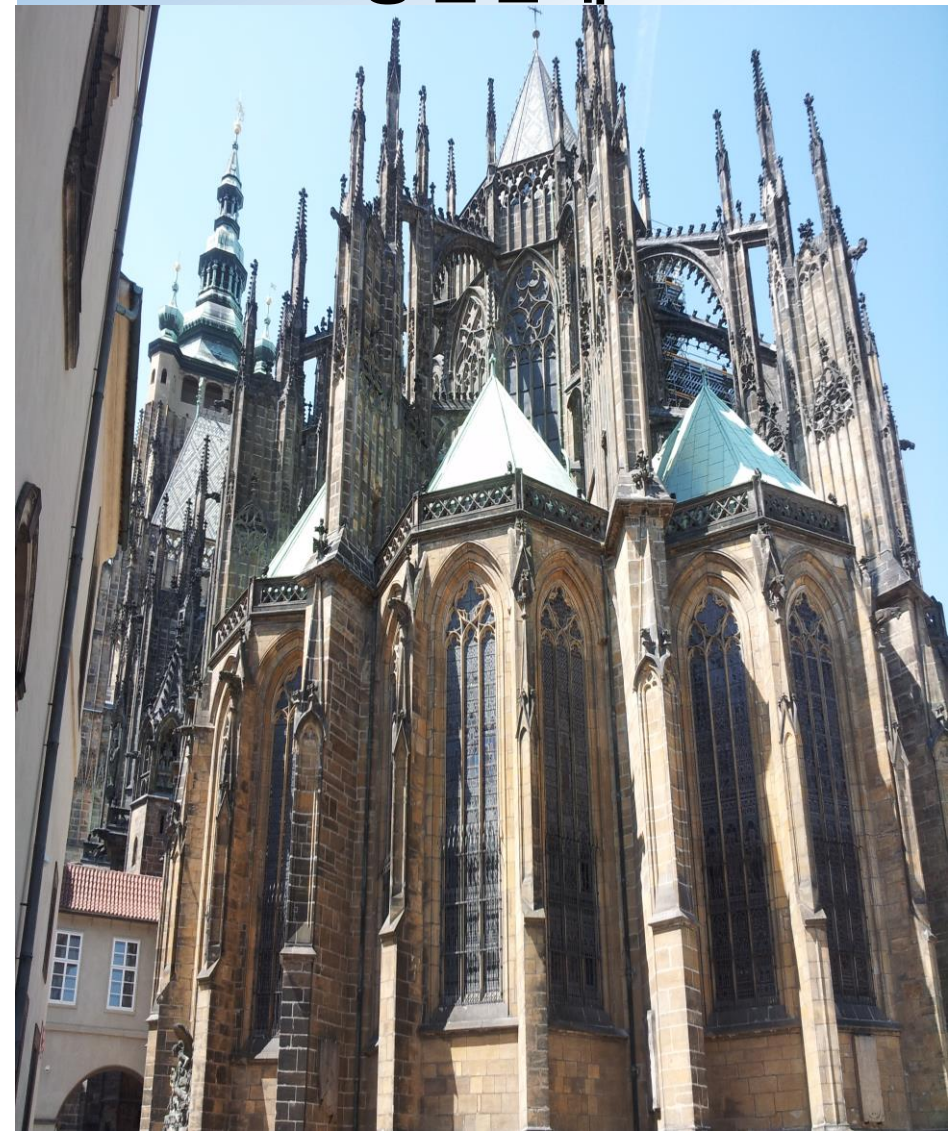
**엡1: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엡 5: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골1: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1:24**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위 구절에 의하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적 교회를 세운 적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2제자와 공동체를 세웠다는  
자체가 이미 교회의 기초를 세움.  
사도들이 지역 교회를 세우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바로 여기에 교회가 다른 유기적 공동체와 다른 점이 있다. “기독교 공동체의 독특성과 통일성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주어짐. 교회는 공통의 시간적 시작, 그리고 공통의 근거, 그리스도 사건으로부터 살아간다.”(Strecker) 다시 말해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가능하다.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 3. 성령의 전,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

관련구절: 고전 3:16, 6:19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행 20: 28: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 3. 성령의 전,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동체일 뿐 만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다.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말을 할 때 단순히 성령의 공간적 현존을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는 단순히 성령이 여기 이 자리에 오셨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공간에 교회가 함께 동참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 3. 성령의 전,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에  
의하여 주장되며, 성령의 열매  
를 맺는 공동체라는 것이다.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 성서적 교회론의 의미

한스킹 "시대와 교회 그리고 교회의 자기 이해의 변화 속에서 신약 성서의 실제적인 교회, 그러나 이미 변화의 과정 속에 있었고 다양하게 세분화되었던 신약성서의 교회를 숙고해 본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신학, 즉 그 어떠한 시대에도 집착하지 않고 다만 살아계신 종말론적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사로잡혀 있는 신학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교회는 자신의 과거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항상 변화하는 세계,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교회의 역사 이래 영웅적 개혁자들과 변혁가들과 혁명가들이 오고갔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타락과 부패 속에 있었다는 말도 된다. 교회는 개혁공동체이기도 했지만, 개혁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존재와 삶과 사명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 교회론 3강 수지소망 양육과정 증인단계





# Homework

1.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 교회와의 차이점을 암기해봅시다.**



# Homework

2.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대표적 3가지 이미지를 암기해 봅시다





## Homework

3. 우리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론 위에  
영적 가족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성령의 강림이 있도록  
내가 헌신해야 할 부분을 고민해봅시다.